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
- WSJ: AI 붐, 미 경제 체질 바꿔
- Bloomberg: 6월 미 채용 공고 줄었지만 해고 제한적
- CNBC: 필라 연은 총재 “현재의 미 금리 수준 좋다”
- Bloomberg: 미 무역적자 수입 줄어 7백33억불로 감소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&P500 지수, 거의 사상 최고치…호르무즈 합의 추진 소식에

[중동전쟁]
- Bloomberg: 미 이란 타결 가능성…카타르 합의 제안서 초안 발표

[오일]
- CNBC: 오일 급락…미 재무장관의 호르무즈 개방 가능성 언급에

[글로벌 경제]
- WSJ: WSJ "한국 수출 증가율, 여전히 견조해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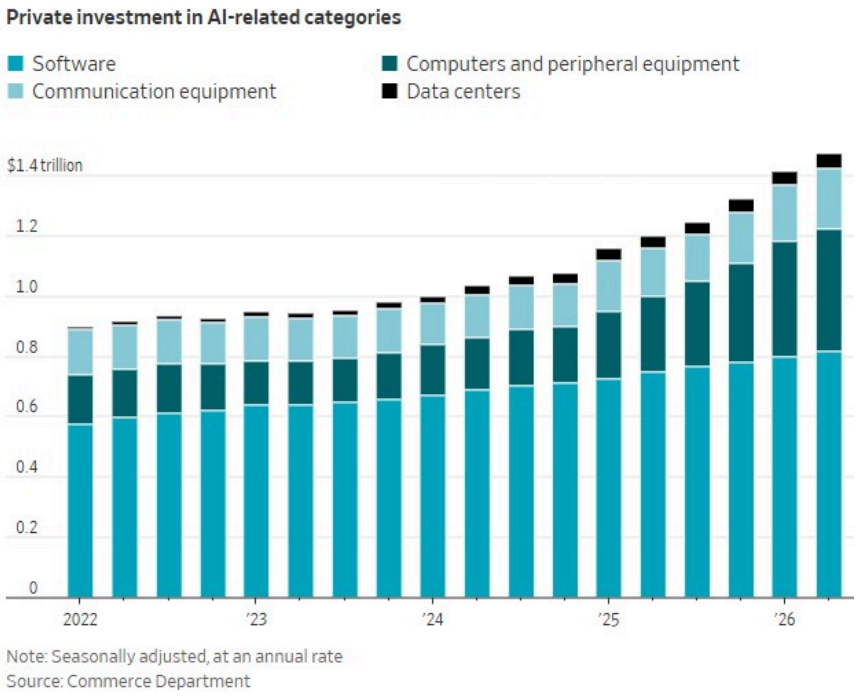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Bloomberg: 인공지능이 회사 인사 담당자 위협한다
- CNBC: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, AI 붐 타고 건설 수요 폭발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WSJ: The AI Boom Is Transforming the American Economy Beyond Recognition
AI 붐, 미 경제 체질 바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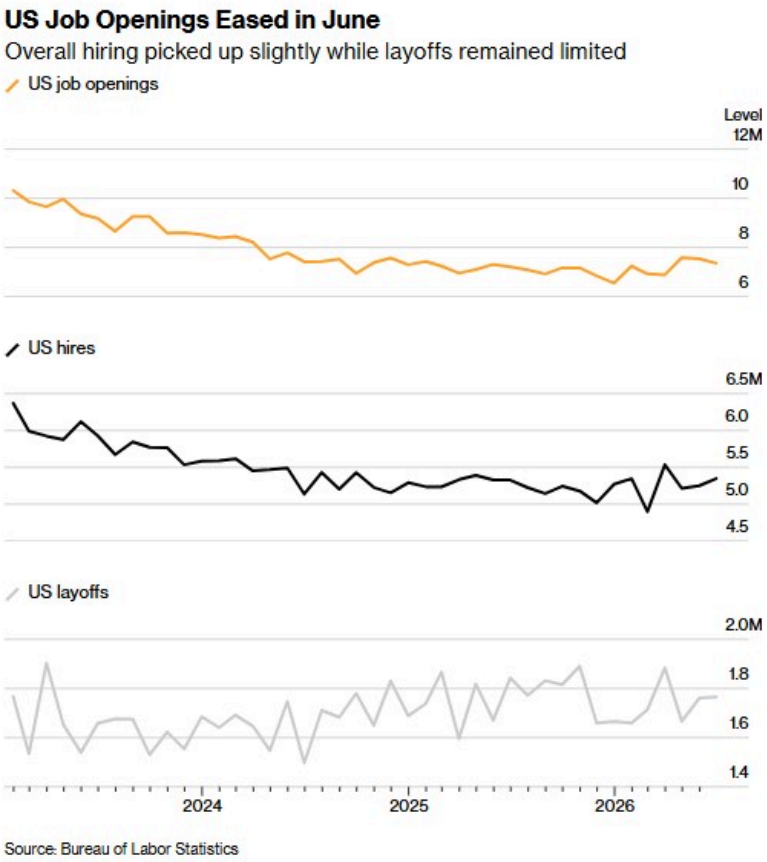
- AI가 설비투자부터 아이폰 가격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을 흔들며 거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. 경제학자들은 AI 투자 및 증시 호황이 미국 실질 GDP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.
- AI 관련 기업 투자액은 연율 기준 약 1조 5천억 달러로, 2년 전(1조 달러) 대비 급증했다.
- 영국계 글로벌 금융사인 Barclays에 따르면 빅테크 ‘하이퍼스케일러’ 5개사와 스페이스X의 올해 채권 발행 규모 역시 지난해(1,090억 달러)의 두 배를 웃도는 2,8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.



기사

Bloomberg: US Job Openings Edged Down in June, Layoffs Remained Limited
6월 미 채용 공고 줄었지만 해고 제한적

- 6월 미국 채용 공고 건수는 줄었으나 채용은 소폭 늘어 여름철 노동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방노동통계국의 오늘 화요일 발표 따르면 구인 건수는 5월 7백54만 건에서 7백36만 건으로 감소했으며, 해고는 변동이 없었다.
- 의료, 레저·숙박, 도매업, 전문 서비스 분야가 감소세를 이끈 반면, 운송·창고업과 연방정부 채용 공고(2024년 말 이후 최고치)는 증가했다.
- 이번 발표는 노동 시장의 안정세를 나타낸다. 기업들의 채용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소비 지출이 고용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.

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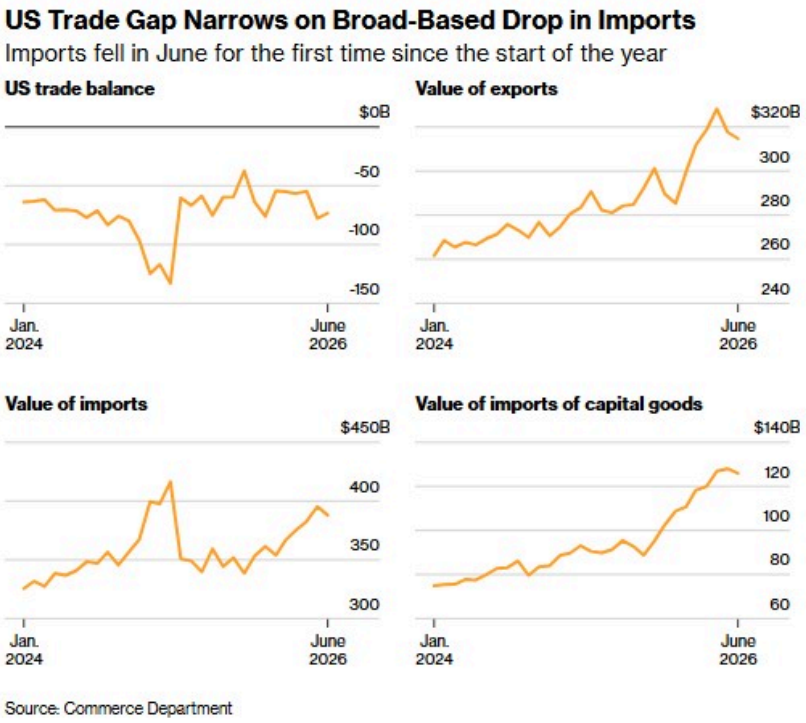
CNBC: Philadelphia Fed President Paulson content with rates at current level, but keeping an open mind
필라 연은 총재 "현재의 미 금리 수준 좋다"

- Anna Paulson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늘 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.
- 그는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에 표를 던진 다수파에 합류했으며, 위원회 내부 의견이 9대 3으로 갈렸음에도 본인으로서는 '분명한 결정이었다'고 강조했다.
- 그는 또 케빈 워시 의장이 언급했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.

기사

Bloomberg: US Trade Deficit Narrows to $73.3 Billion on Drop in Imports
미 무역적자 수입 줄어 7백33억불로 감소

- 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감소했다.
-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6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 대비 5.6% 줄어든 733억 달러를 기록했다. 수입액은 1.8% 감소했으며, 수출액 역시 0.9% 줄었다.
- 이번 자료는 지난 분기 순수출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. 변동성이 심한 관세 정책, 중동 전쟁으로 인한 차질, 그리고 AI 투자 붐이 맞물리면서 무역 수지는 월별로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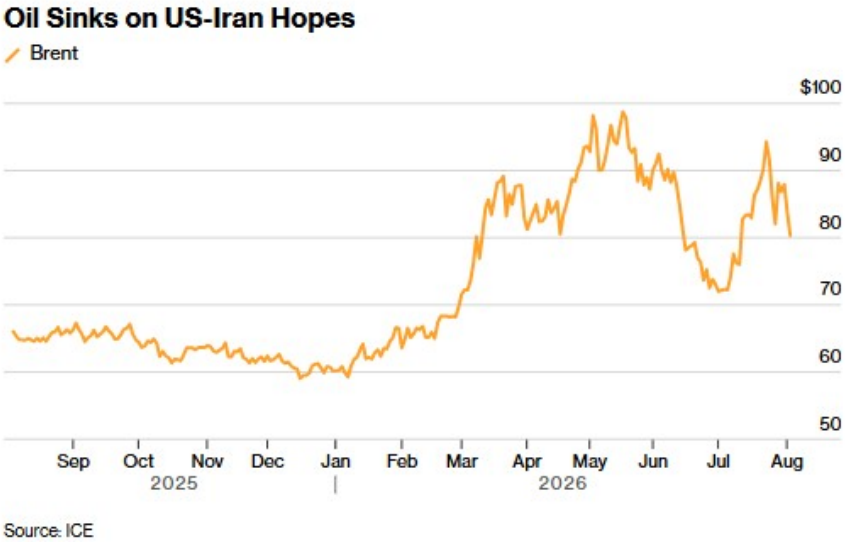
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Stocks Hold Near Record Highs as Earnings Roll In
S&P500 지수, 거의 사상 최고치…호르무즈 합의 추진 소식에

-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솟고 국채 가격은 상승(금리 하락)한 반면, 유가는 급락했다. 여기에 호조를 보인 기업 실적까지 더해지며 월가의 상승 열기에 불을 지폈다.
- 중재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 미국의 대규모 이란 공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브렌트유는 8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.
- S&P 500 지수는 1% 넘게 상승, 지난 6월의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, 나스닥 100지수는 거의 2% 상승중이다. 팔란티어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AI 수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운 가운데, 시장은 이제 스페이스X와 AMD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.

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Qatar, Bessent Signal Progress on Short-Term US-Iran Deal
미 이란 타결 가능성…카타르 합의 제안서 초안 발표

- 카타르의 제안서 초안 작성 발표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 발언으로 미·이란 간 타결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다.
- 다만 양측 모두 확정된 합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, 이란도 진전 신호를 내놓지 않았다.
- 향후 외교적 해결은 또다른 중재국인 오만과 이란 간 협상에 달린 모습이다. 이란은 허가 없는 통항 선박을 제지하고 해상 교통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.

기사

[오일]

CNBC: Oil gives up earlier gain, tumbles after Bessent says deal on Strait of Hormuz may come this week
오일 급락…미 재무장관의 호르무즈 개방 가능성 언급에

- 연방 재무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화요일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.
-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4% 이상 하락한 배럴당 79.99달러,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약 5% 내린 76.18달러에 거래됐다.
- 베센트 재무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"이란과 협상 중이며, 이틀 내 해협 개방 및 사태 정상화 합의 가능성이 있다 밝혔다. 이란의 통행료 징수 허용 여부에는 "자유로운 이동이 될 것"이라 답했다.

기사

[글로벌 경제]

WSJ: South Korea’s Export Growth Moderates But Remains Solid on Chip Demand
WSJ "한국 수출 증가율, 여전히 견조해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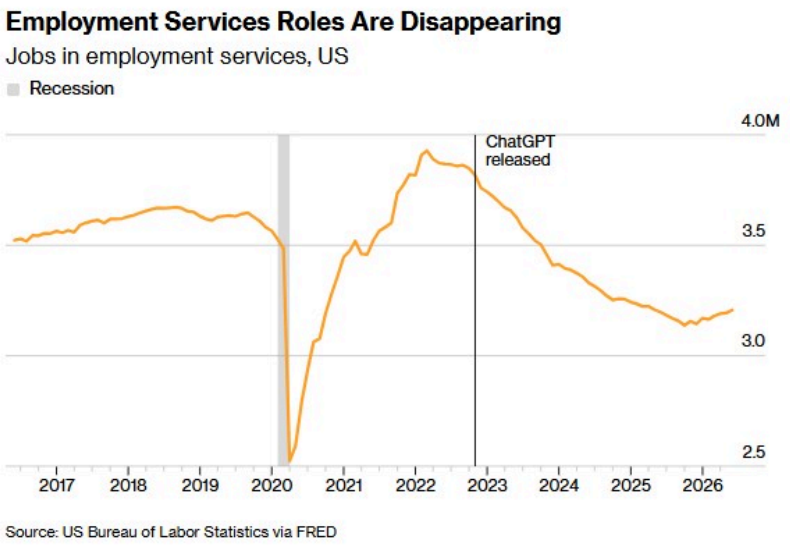
- 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호조로 7월 한국 수출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.
-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62.8% 증가한 988억 9천만 달러를 기록, 50년 만에 최고치였던 6월(70.7%)보다는 다소 둔화했으나 예상치를 웃돌았다.
- 7월 수입은 26.5% 늘어난 685억 6천만 달러로, 무역수지는 303억 2,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(6월 360억 9천만 달러)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Bloomberg: AI Is Giving Your HR Department an Existential Crisis
인공지능이 회사 인사 담당자 위협한다

-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로 인사(HR) 담당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미국인사관리협회(SHRM) 회장이 경고했다.
- 입사 지원서 검토나 복리후생 문의 응대 등 HR 부서 핵심 업무의 3분의 2가 자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.
- 이에 HR 인력들은 사람과 디지털 노동이 섞인 하이브리드 팀을 관리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며 생존을 위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.



기사

WSJ: Caterpillar Lifts Outlook as Profit, Sales Jump
중장비 업체 캐터필러, AI 붐 타고 건설 수요 폭발

-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(Caterpillar)가 AI 붐에 따른 건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.
- 캐터필러의 2분기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% 급증한 20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, 순이익은 35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. 단일 분기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회사 설립 이래 처음이다.
- 이 같은 고속 성장은 AI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강력한 건설·에너지 수요가 견인했다. 부문별로는 건설 기계 사업부 매출이 35% 폭등한 83억 5,000만 달러, 에너지·전력 사업부 매출이 17% 증가한 8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뒷받침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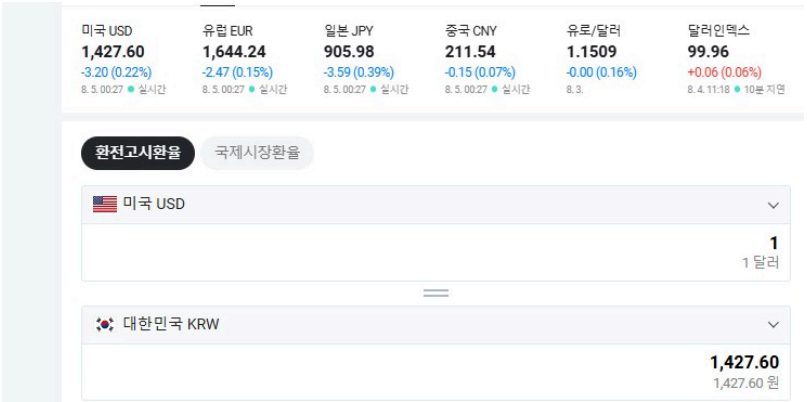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3,986.60	+808.2	+1.52%
US 500	7,698.40	+97.9	+1.29%
Dow Jones	53,996.09	+817.68	+1.54%
S&P 500	7,698.66	+98.17	+1.29%
Nasdaq	26,394.27	+480.37	+1.85%
S&P 500 VIX	16.27	+0.41	+2.59%
Dollar Index	99.82	+0.039	+0.04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4/32	5.202	-0.028
10-Year Note	4.375	3/32	4.644	-0.035
7-Year Note	4.375	3/32	4.489	-0.043
5-Year Note	4.375	24/32	4.348	-0.049
3-Year Note	4.125	1/32	4.261	-0.041
2-Year Note	4.25	1/32	4.210	-0.040
1-Year Bill	0	0/32	4.020	-0.016
6-Month Bill	0	0/32	3.965	0.013
3-Month Bill	0	1/32	3.818	0.038
1-Month Bill	0	0/32	3.685	-0.006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